일본의 스포츠

22101494 장경필

경제 수준도 세계 3위이고 인구도 많아서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산업이 다방면에서 골고루 발전해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학교 교육에서 클럽 활동이 큰 비중을 가지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답게 학창시절 각종 스포츠를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 생활체육의 저변이 엄청나게 넓다. 거의 전 국민이 한두개 이상쯤은 스포츠 경험이 있는 생활체육대국이다.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종목에 참가하는 나라 중 하나이며, 이 전 국민의 생활체육 경험과정에서 엘리트스포츠 인재가 발굴되고, 이러한 엘리트 스포츠 선수가 해당 종목 붐을 일으키는 등 선순환을 이루는 모범사례로 꼽힌다. 문화에 굶주린 민족이라는 별칭답게 프로스포츠 문화도 아주 좋아해서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큰 스포츠 시장이기도 하다.

[스모](https://namu.wiki/w/%EC%8A%A4%EB%AA%A8)는 명실공히 일본의 국기이며 [복싱](https://namu.wiki/w/%EA%B6%8C%ED%88%AC)도 수준이 매우 높고 잘 하면서 인기가 상당히 높으며 다수의 세계 랭커 및 챔피언들을 보유 중이다. 격투기로 분류하기는 좀 그렇고 예전만은 못하지만 [프로레슬링](https://namu.wiki/w/%ED%94%84%EB%A1%9C%EB%A0%88%EC%8A%AC%EB%A7%81)도 전통적인 인기 스포츠이다.

일본의 국기라고 하면 [유도](https://namu.wiki/w/%EC%9C%A0%EB%8F%84)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이외에도 [검도](https://namu.wiki/w/%EA%B2%80%EB%8F%84), [아이키도](https://namu.wiki/w/%EC%95%84%EC%9D%B4%ED%82%A4%EB%8F%84), [가라테](https://namu.wiki/w/%EA%B0%80%EB%9D%BC%ED%85%8C) , [슛복싱](https://namu.wiki/w/%EC%8A%9B%EB%B3%B5%EC%8B%B1)의 종주국이며 당연히 수준도 높다.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킥복싱](https://namu.wiki/w/%ED%82%A5%EB%B3%B5%EC%8B%B1)도 일본이 종주국이다. 물론 태국 [무에타이](https://namu.wiki/w/%EB%AC%B4%EC%97%90%ED%83%80%EC%9D%B4)와 차이가 크지않고, 킥복싱 시장의 경우에도 오히려 [서양](https://namu.wiki/w/%EC%84%9C%EC%96%91)이 더 발달된 경향이 있기는하다.

국기는 아니지만 [주짓수](https://namu.wiki/w/%EC%A3%BC%EC%A7%93%EC%88%98) 또한 일본 유술의 영향을 받았다. 주짓수라는 이름부터가 [한자](https://namu.wiki/w/%ED%95%9C%EC%9E%90) 유술의 [**일본어**](https://namu.wiki/w/%EC%9D%BC%EB%B3%B8%EC%96%B4)**발음**이다. [이종격투기](https://namu.wiki/w/%EC%9D%B4%EC%A2%85%EA%B2%A9%ED%88%AC%EA%B8%B0), [종합격투기](https://namu.wiki/w/%EC%A2%85%ED%95%A9%EA%B2%A9%ED%88%AC%EA%B8%B0)도 매우 흥했지만 [K-1](https://namu.wiki/w/K-1)의 몰락과 [PRIDE](https://namu.wiki/w/PRIDE)의 도산으로 현재는 거의 몰락.(프라이드 망한지가 벌써 **13년**차다) 그러나 [격투기](https://namu.wiki/w/%EA%B2%A9%ED%88%AC%EA%B8%B0) 종목 전반적으로 보면 다양한 종목에 걸쳐서 상당한 인프라와 대중성을 가진 강국이다.

야구는명실상부 일본에서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이다. [구글 어스](https://namu.wiki/w/%EA%B5%AC%EA%B8%80%20%EC%96%B4%EC%8A%A4)로 일본을 보게 되면 동네마다 [야구장](https://namu.wiki/w/%EC%95%BC%EA%B5%AC%EC%9E%A5)들이 즐비하게 널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일본 프로야구인 [NPB](https://namu.wiki/w/NPB)는 1936년에 첫선을 보여 80년이 넘고 세계 2위 리그 인프라와 역사를 자랑하는 인기 스포츠이다. 12개 구단이 존재하며 관중 동원 면에서도 846경기 동안 2167만명이라는 관중을 동원(2010시즌 기준)하며 전 세계 프로스포츠 관중 동원 수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일본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스포츠이다. 2015년 기준 아시아에서 [일본프로야구](https://namu.wiki/w/%EC%9D%BC%EB%B3%B8%ED%94%84%EB%A1%9C%EC%95%BC%EA%B5%AC)보다 많은 평균 관중 수를 동원한 리그는 **없다**. 그리고 2017년엔 이윽고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https://namu.wiki/w/%EB%A9%94%EC%9D%B4%EC%A0%80%20%EB%A6%AC%EA%B7%B8%20%EB%B2%A0%EC%9D%B4%EC%8A%A4%EB%B3%BC)**을 추월**, 전세계 평균관중수 1위의 야구리그가 되었다. [요미우리 자이언츠](https://namu.wiki/w/%EC%9A%94%EB%AF%B8%EC%9A%B0%EB%A6%AC%20%EC%9E%90%EC%9D%B4%EC%96%B8%EC%B8%A0)나 [한신 타이거즈](https://namu.wiki/w/%ED%95%9C%EC%8B%A0%20%ED%83%80%EC%9D%B4%EA%B1%B0%EC%A6%88) 같은 명문 야구단의 경우 평균관중수를 4만명 이상 기록하는 초 인기구단으로 MLB에서도 한신보다 평균관중이 높은 구단은 LA다저스 단 한 구단 뿐이다. 이들 구단이 벌어들이는 수익도 어마어마하다.

2014년 기점으로 젊은 층, 특히 여성 층의 인기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다. 여성들 사이에서 [히로시마 도요 카프](https://namu.wiki/w/%ED%9E%88%EB%A1%9C%EC%8B%9C%EB%A7%88%20%EB%8F%84%EC%9A%94%20%EC%B9%B4%ED%94%84)를 응원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 카프조시(カープ女子) 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했다.[[8]](https://namu.wiki/w/%EC%9D%BC%EB%B3%B8/%EC%8A%A4%ED%8F%AC%EC%B8%A0#fn-8) 또한 2014년 설문조사에서도 프로야구를 즐기는 인구가 3,000만명이 넘는다는 것이 나오기도 했다. 전국 [도도부현](https://namu.wiki/w/%EB%8F%84%EB%8F%84%EB%B6%80%ED%98%84)을 대상으로 응원하는 팀을 조사했을 때 [오릭스 버팔로스](https://namu.wiki/w/%EC%98%A4%EB%A6%AD%EC%8A%A4%20%EB%B2%84%ED%8C%94%EB%A1%9C%EC%8A%A4)가 제일 인기가 많다고 답한 도도부현은 하나도 없었다.

야구는 올해(2014년) 미쓰비시UFJ 리서치&컨설팅 조사에서도 역시나 일본인이 좋아하는 최고의 스포츠였다. 일본에서 프로야구를 즐기는 인구는 3,128만명에 [이르렀다.](http://sports.news.naver.com/sports/index.nhn?category=mlb&ctg=news&mod=read&office_id=472&article_id=0000000269)

[일본 고교야구 전국대회](https://namu.wiki/w/%EC%9D%BC%EB%B3%B8%20%EA%B3%A0%EA%B5%90%EC%95%BC%EA%B5%AC%20%EC%A0%84%EA%B5%AD%EB%8C%80%ED%9A%8C)인 [코시엔](https://namu.wiki/w/%EC%9D%BC%EB%B3%B8%20%EA%B3%A0%EA%B5%90%EC%95%BC%EA%B5%AC%20%EC%A0%84%EA%B5%AD%EB%8C%80%ED%9A%8C)[[9]](https://namu.wiki/w/%EC%9D%BC%EB%B3%B8/%EC%8A%A4%ED%8F%AC%EC%B8%A0#fn-9)은 일본 공영방송인 [NHK](https://namu.wiki/w/NHK) 에서 전 경기를 중계하며, 매년 80만 명 이상의 관중 동원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여름 고시엔은 일본에서 뜨거운 여름을 상징하는 대회이기도 하다. 또한 독립구단이나 [사회인 야구](https://namu.wiki/w/%EC%9D%BC%EB%B3%B8%EC%9D%98%20%EC%82%AC%ED%9A%8C%EC%9D%B8%EC%95%BC%EA%B5%AC)(실업야구)가 매우 발달해 있는 편이다. 독립 구단도 4개가 존재하며, 사회인야구팀의 경우에도 기업에서 운영하는 야구팀과 전문적인 야구선수들이 활동하는 클럽야구팀만 해도 343개에 달한다.

실업야구 또한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실업야구가 프로야구 출범 이후 실업야구가 프로야구에 밀려버려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만 한국과는 달리 일본의 실업야구는 여전히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실업야구에서 잘하는 선수는 프로로 스카우트되고 프로에서 못해서 방출된 선수는 실업야구에서 뛸 수 있다.

[축구](https://namu.wiki/w/%EC%B6%95%EA%B5%AC), [야구](https://namu.wiki/w/%EC%95%BC%EA%B5%AC), [럭비](https://namu.wiki/w/%EB%9F%AD%EB%B9%84) 등과 더불어서 역시 일본의 최고 인기 스포츠 중 하나. 현재 일본에선 배구를 보통 바레보루(バレーボール, Volleyball의 일본식 발음)라고 부른다. [올림픽](https://namu.wiki/w/%EC%98%AC%EB%A6%BC%ED%94%BD)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1964 도쿄 올림픽](https://namu.wiki/w/1964%20%EB%8F%84%EC%BF%84%20%EC%98%AC%EB%A6%BC%ED%94%BD)에서는 여자배구가 [소련](https://namu.wiki/w/%EC%86%8C%EB%A0%A8)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할 만큼 강팀이었고 당시 소련과의 결승전은 일본에서 집계한 TV 시청률이 무려 69%[]](https://namu.wiki/w/%EC%9D%BC%EB%B3%B8/%EC%8A%A4%ED%8F%AC%EC%B8%A0#fn-19)가 나왔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다. 지금도 여자배구 국가대표의 경기는 축구 시청률과 맞먹는 정도다. 반면에 남자 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아시아 유일의 올림픽 남자 배구 금메달을 보유한 나라이며, 동양에서 배구만큼 강세를 보이는 구기 종목도 없다.**[]](https://namu.wiki/w/%EC%9D%BC%EB%B3%B8/%EC%8A%A4%ED%8F%AC%EC%B8%A0#fn-20)

일본의 배구 중계를 보고 있자면 버라이어티 쇼를 방불케 한다. 인기 아이돌 가수를 초청해 공연을 한다거나 2지상파 TV에서는 대회기간 연일 경기 소식을 전하기 바쁘다.

여자 배구는 올림픽에서 금은동 각 2개를 딸 정도로 강팀이지만, 남자 배구는 여자 배구에 훨씬 못미친다.  인기면에서도 여자 배구가 남자 배구보다 압도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국제대회에서 여자배구 성적이 더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성적 하락과 인기도 하락하여, 차츰 주춤하고 있다. 특히 90년대는 일본 여자 배구의 암흑기로, 94년부터 97년까지는 한국에 16전 전패를 당하기도 했다. [2000 시드니 올림픽](https://namu.wiki/w/2000%20%EC%8B%9C%EB%93%9C%EB%8B%88%20%EC%98%AC%EB%A6%BC%ED%94%BD) 탈락의 충격으로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가 세대 교체를 실시하기도 했다.

일본의 스타일은 단신이지만 끈끈한 조직력과 스피드로 승부하고, 수비가 강하다. 세터의 손에서 나오는 토스가 빠르고 이단연결이 상당히 좋은 팀이다.[[22]](https://namu.wiki/w/%EC%9D%BC%EB%B3%B8/%EC%8A%A4%ED%8F%AC%EC%B8%A0#fn-22) 이러한 점 때문에 2000년대 초반 세대 교체에 실패한 한국 여자배구는 일본에 22연패라는 끔찍한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23]](https://namu.wiki/w/%EC%9D%BC%EB%B3%B8/%EC%8A%A4%ED%8F%AC%EC%B8%A0#fn-23) 그야말로 극공일증이다. 당시 일본 대표팀 멤버는 '텐상' [다케시타 요시에](https://namu.wiki/w/%EB%8B%A4%EC%BC%80%EC%8B%9C%ED%83%80%20%EC%9A%94%EC%8B%9C%EC%97%90) 세터를 필두로, 주포 구리하라 메구미, 살림꾼 다카하시 미유키, 센터 [아라키 에리카](https://namu.wiki/w/%EC%95%84%EB%9D%BC%ED%82%A4%20%EC%97%90%EB%A6%AC%EC%B9%B4), 오토모 아이, 월드리베로 [사노 유코](https://namu.wiki/w/%EC%82%AC%EB%85%B8%20%EC%9C%A0%EC%BD%94) 등이 주축이었다. 다만, 일본도 세대교체에 은근 애를 먹기도 했는데, 2000년대 중반 서양식 장신 배구를 한다고 실력에 관계없이 키 큰 선수만 뽑아다가 경기하다 잠깐 폭망한 적이 있다.

여자배구는 침체기를 겪다 2010년 세계선수권과 [2012 런던 올림픽](https://namu.wiki/w/2012%20%EB%9F%B0%EB%8D%98%20%EC%98%AC%EB%A6%BC%ED%94%BD)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부활을 노리고 있다. 특히 [2012년 런던 올림픽](https://namu.wiki/w/2012%EB%85%84%20%EB%9F%B0%EB%8D%98%20%EC%98%AC%EB%A6%BC%ED%94%BD) 동메달 결정전에서는 똑같이 30여년 만에 메달을 노리는 라이벌 한국과 만나 3-0 스트레이트로 승리하며 메달을 따냈다.

리그의 경우에는 실업리그이긴 하나 용병제도도 있고, 실력면에선 사실상 프로나 마찬가지다. 이름도 V프리미어리그다.(1부리그) 프로가 아니라 실업리그이다 보니 선수들은 회사 소속 직원 신분이라고 한다. 하지만 프로화를 시도해보았지만 배구의 인기 하락으로 난관에 부딪치면서 현재도 프로화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축구 역시 일본의 인기 스포츠다. 1980년대 초반까지는 야구와 인기면에서 넘사벽급의 차이가 있었으며 프로화도 한국보다 늦게 시작되었다. 1980년대에 급속하게 인기를 얻기 시작, 1990년대에 월드컵 개최를 목적으로 두며 프로화가 단행되었고 1998년 월드컵 진출도 이루어지며 야구와 호각세를 달리는 인기 스포츠가 되었다. 2020년 3월 기준 FIFA 랭킹 28위이다.

일본 프로축구 리그인 [J리그](https://namu.wiki/w/J%EB%A6%AC%EA%B7%B8)는 2012년 기준 경기당 평균 유료관중 1만 7000명 수준으로 AFC에서 공인한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리그다. 2018년 현재 일본 각 리그별 팀들은 지역밀착에 성공하면서 꾸준히 관중몰이를 하며 인기를 누리는 중이다. 한국인들도 여기에 많이 가 있다.

여자축구는 원래 중국과 북한에 밀려 그다지 강하지 않았으나, [2008 베이징 올림픽](https://namu.wiki/w/2008%20%EB%B2%A0%EC%9D%B4%EC%A7%95%20%EC%98%AC%EB%A6%BC%ED%94%BD) 여자부 축구 4위를 기점으로, 2010년대 들어와서 전력이 급상승하여 여자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2012 런던 올림픽](https://namu.wiki/w/2012%20%EB%9F%B0%EB%8D%98%20%EC%98%AC%EB%A6%BC%ED%94%BD)에선 은메달을 차지하는 등 상당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 여자 축구는 대지진으로 좌절을 겪었었던 일본에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는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여 2011년엔 나데시코 재팬이 일본 유행어 제1위로 떠오르게 되었고 일본은 지금도 여자 축구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

과거엔 한국 선수의 프리미어 진출 붐과 비슷하게 나카타의 일본 진출과 더불어 각종 매체의 호의적인 묘사 등으로 인해 세리에A 위주로 진출하려는 성향을 보였다. 당시 세리에는 지금의 프리미어 리그 급으로 넘버원 리그의 입지를 차지하고 있던 시절이기도 하고. 2010년대에 들어서 [카가와 신지](https://namu.wiki/w/%EC%B9%B4%EA%B0%80%EC%99%80%20%EC%8B%A0%EC%A7%80)나 [하세베 마코토](https://namu.wiki/w/%ED%95%98%EC%84%B8%EB%B2%A0%20%EB%A7%88%EC%BD%94%ED%86%A0) 등 일본 국가대표 축구선수의 독일 [분데스리가](https://namu.wiki/w/%EB%B6%84%EB%8D%B0%EC%8A%A4%EB%A6%AC%EA%B0%80)에서 거둔 성공으로 젊은 선수들이 덩달아 독일에 진출하고 있다.

[2020 도쿄 올림픽](https://namu.wiki/w/2020%20%EB%8F%84%EC%BF%84%20%EC%98%AC%EB%A6%BC%ED%94%BD)을 유치하면서 [영국](https://namu.wiki/w/%EC%98%81%EA%B5%AD), [프랑스](https://namu.wiki/w/%ED%94%84%EB%9E%91%EC%8A%A4), [미국](https://namu.wiki/w/%EB%AF%B8%EA%B5%AD), [그리스](https://namu.wiki/w/%EA%B7%B8%EB%A6%AC%EC%8A%A4) 다음으로,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하계올림픽을 두 번 개최하는 국가가 되었다.

일본은 [1964 도쿄 올림픽](https://namu.wiki/w/1964%20%EB%8F%84%EC%BF%84%20%EC%98%AC%EB%A6%BC%ED%94%BD) 이후 생활체육 정책을 폈는데, 90년대부터 조금씩 투자를 늘렸으나 여전히 메인은 생활체육이었다. 생활체육 기반의 엘리트체육, 둘의 통합이라 보는 것이 적절했다. 이런 상황에서 2020 도쿄 올림픽 유치를 기점으로,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https://namu.wiki/w/2016%20%EB%A6%AC%EC%9A%B0%EB%8D%B0%EC%9E%90%EB%84%A4%EC%9D%B4%EB%A3%A8%20%EC%98%AC%EB%A6%BC%ED%94%BD)을 앞두고는 아예 스포츠청을 신설하여 유망주들을 발굴하기 시작했고, 2008년에 만든 아지노모토 센터를 중심으로 체육시설 또한 늘렸다.

일본의 성적 향상의 또 다른 힘으론 일본 국적의 혼혈 스포츠 선수가 활약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오사카 나오미](https://namu.wiki/w/%EC%98%A4%EC%82%AC%EC%B9%B4%20%EB%82%98%EC%98%A4%EB%AF%B8)라는 역대급 여자 테니스 선수가 등장했고 NBA 1라운드 9순위로 워싱턴에 입단한 NBA 최대 유망주 중 하나 [루이 하치무라](https://namu.wiki/w/%EB%A3%A8%EC%9D%B4%20%ED%95%98%EC%B9%98%EB%AC%B4%EB%9D%BC)가 대표사례.

사실 예전부터 혼혈선수나 귀화선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긴하다. 농구의 미국 혼혈 히루키 겐지(1985년생), 배구에선 브라질 혼혈 스기야마 마르코스(1973년생) 등 찾아보면 예전부터 활약하여 은퇴 나이에 접어든 혼혈 일본인 선수들이 상당히 많다. 상술된 선수들은 일본 혼혈이면서도 실력이 세계정상급인 선수들이여서 최근에 더 돋보이는 것이다.

마치 [2012 런던 올림픽](https://namu.wiki/w/2012%20%EB%9F%B0%EB%8D%98%20%EC%98%AC%EB%A6%BC%ED%94%BD)을 기점으로 체육 성적을 향상시킨 [영국](https://namu.wiki/w/%EC%98%81%EA%B5%AD)처럼, 일본 또한 자국이 유치한 올림픽을 기점으로 2010년 중반부터 스포츠 종목 전체의 전반적인 성적 향상이 눈에 띄는 중이다.